

What Shall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위하여



마가렛 데이비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_____ 님께
이 소중한 책자를 드립니다.

하늘의 소망을 함께 가진

_____ 드립니다.

주후 20 년 월 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영원한 삶을 위하여



마가렛 데이비스

What Shall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Seminar

By Margaret Davis

Copyright © 2004 by
Margaret Davis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영원한 삶을 위하여

1.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0
2. 그대는 거듭나야만 한다 10
3. 그대는 그대의 그릇에 기름을 가져야만 한다 14
4. 그대는 결혼예복을 가져야만 한다 17
5. 그대는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 20
6. 예수께서 그대의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라 22
- . 그대의 구원에 하나님과 협력하라 24
8.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26
9. 그분의 이끄심에 저항하지 말라 29
10. 그분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다 31
11. 그대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의를 필요로 하라 33
12. 그분께서 그대에게 회개를 주실 것이다 39
13. 그대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그대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라 40
14. 그분께서 그대를 용서하시고 깨끗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셔서 성화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41



Contents

15. 그분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라 · 5	5
16. 그분께서 그대 안에 사실 것이며 그대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56
17. 그분 안에 거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라	60
18.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68
19. 유혹받을 때에 그분께서 그대를 도우실 것이며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71
20. 하나님의 피할 길을 취하고 그분께 굴복하라	75
21. 그분은 그대를 넘어짐에서 지키실 수 있다	77
22. 모두가 유혹받을 것이다-유혹은 죄가 아니다	79
23. 영으로써 행하라-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지 말라 ...	82
24.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86
25. 만일 그대가 넘어진다면 그분께서 그대의 변호자가 되실 것이다	87
26.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분께로 돌아오라	90
27. 서로 용서하라	94
28. 그대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96
29.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가라	97



Cooperate With God In Your Salvation

그대의 구원에 하나님과 협력하라

- ◆ 그분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친절로 우리를 이끄신다.
/ 우리는 말씀연구와 기도를 통해 그분을 앎으로 응답한다.
- ◆ 그분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죄를 드러내신다.
/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함 없이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
- ◆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며, 죄 때문에 슬퍼하는 진실한 마음이 생기게 하신다. / 우리는 회오의 마음으로 자복하고, 자신과 죄에 대한 권리를 드린다.
- ◆ 그분께서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깨끗케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영을 창조하신다. / 우리는 깨끗케 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믿고 경험한다.
- ◆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열매를 맺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행한다.
- ◆ 유혹 받을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그 유혹자를 물리칠 능력을 주신다. / 우리는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한다.
- ◆ 만일 우리가 넘어진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 탄원하실 것이다. /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자신에게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

알림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킹 제임스 흠정역(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경이며 다른 번역본을 사용했을 경우엔 인용절 끝에 약자로 표기했습니다(예: 갈 5:22 RSV). 또한 이 책에 사용된 모든 인용문들의 페이지는 영문 페이지임을 알려드립니다.



What Shall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1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어떤 치리자가 그분께 여쭙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니” 눅 18:18.

이것은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계명)들을 지키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어느 명령이이니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에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사오니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이까?” 마 19:17~20.

“예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끌리셨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한 그의 확인으로 청년의 성실함을 아셨다.”(소망, 519)

그는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으며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 관원의 개념은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것이었다. 사람의 표준에 따라 판단할 때 그는 흠 없는 품성을 보전해 왔다. 그의 외적 생애는 별로 죄가 없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순종에는 결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옳지 않은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라고 묻게 되었다.”(COL 391)

영원한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관원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vital)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이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이 될 것이었다.”(소망, 519)

“대단히 중요한(vital)”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위해 절대로 필수적인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영혼 속에 단순히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이 청년이 많은 재산을 가졌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 19:21, 22.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가는 것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잠 14:12.

그 청년은 사망에 이르는 길에 있었으며, 그 길에 머물기를 택하였습니다. 그는 매우 이기적인 청년이었고, 그 자신을 위하여 그의 모든 재물을 갈망했으며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일 3:16~18.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일 4:7, 8.

“만일,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 되는 자아 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생애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보훈, 25)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언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들에 대해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진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필요한

.....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에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실물, 384)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5.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 13:10.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의 부인이며, 여러분의 아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가족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진실로 사랑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여러분의 아이들이 불순종할 때에라도, 사랑은 여전히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insist)하지 아니하며 (만일 우리가 이런 종류의 사랑을 가졌다면 가족들 속에 다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로써 그 문제를 서로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 기도며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이 우에게 동의하지 않을 지라도, 혹은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지라도 말입니다)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인내와 친절함으로, 성냄이나 원망 없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4-7.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제어하시기 때문이라” 고후 5:14 NASB.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어 주면, 종종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린 단지 인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종류의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단지 인간일 뿐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성의 참여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음이니.” 롬 5:5.

“많은 이들이 그들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데, 사랑의 원칙이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SD 49.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징과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은사가 있고 모

영원한 삶을 위하여.....

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며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를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전 13:1~3.

저는 이른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는 열한 형제들 중의 둘째였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확고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으셨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협력하는 데 게을리 했다면, 그분은 쉽게 참지 못하고 종종 심히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고서 아버지가 실패한 것 때문에 그 자녀들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만일 필요하다면 순교자가 되더라도 그가 믿는 그 진리들을 위하여 서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열 명에게 성경 연구를 시키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가족들과 싸우고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실물, 158)

저는 순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하면서 부모님과 그러저럭 사이 좋게 지냈으며, 참으로 저는 하늘로 가는 길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그분들을 기꺼이 도왔고 또 농장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혼하고 저의 자녀들을 갖게 된 후에는 쉽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남편과 저는 자녀를 훈련시키는데 있어서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종종 그것에 대해 논쟁했고, 우리 각자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어린 형제자매들을 항상 보살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있어서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아이들과의 경험이 없었으며, 그가 그 아이들에게 이기적이거나 가혹할 때에 저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없었고 성내었으며, 아이들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했으며, 우리가 그저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에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1970년도에 우리는 인도에 있는 우리의 선교지에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

고 저는 저의 부모님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제 시골 집에는 오빠, 누나, 언니 중에 있던 제 형제자매들 중 몇 명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주제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그 개념에 대해 얼마동안 연구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것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데, 저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구원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보이는 어떤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그곳에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는 그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목사의 부인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사였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그 해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새로운 이해를 표현함에 따라, 아버지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렛, 저들의 말이 맞니?” 저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 저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의 참된 연구자는 아니었습니다. 오, 그렇고말고요.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이 제 삶에 능력이 되게 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피상적인 독서가였습니다.

토론이 계속 되면서, 아버지는 점점 더 염려하게 되셨습니다. 하늘에 대한 그분의 소망이 흐르는 모랫더미 위에 세워진 것이었던가? 아버지의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그대의 최선을 다해 순종하라, 그러면 점차로 그대는 그대의 죄를 이기게 될 것이다. 어쨌든 성화는 필생의 사업이지 않은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애의 많은 부분 동안, 아는 죄를 짓는 동안에라도 그리스도의 의가 덮고 있으며, 그가 구원받는 관계 속에 항상 있다고 믿으면서 기질적인 죄들, 성냄, 안달함, 참지 못함, 다툼, 그리고 욕욕을 이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는 마음을 정결케함의 필요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죄짓는 것에서 지켜준다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의 의는 죄를 덮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토론이 계속되 나가면서, 저의 아버지만이 난처하게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신앙은 아버지의 신앙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저를 따라다니는 죄들은 아버지의 것과 비교할 때 작은 것이었으므로, 그것은 마치 제가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 때에 아버지는 78세이셨으며, 어느 순간에 돌아가실지 모를 그런 심장

(질환)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는 오직 이기는 자만이 하늘에 있게 될 것과, 또한 그는 승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직도 모든 다른 열명의 자녀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그를 성나게 하는, 다른 자녀들보다 12년 후에 태어난, 18세 된 아들이 집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의 문제에 대한 깨달음이 내리눌렸으며, 아버지는 “마가렛, 날 도와다오!”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도처에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죄를 정복하게 해 줄 능력, 그들을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 줄 능력, 건강과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줄 능력을 갈망한다.”(치료, 143)

제가 저의 아버지의 탄원의 눈빛을 바라보았을 때, 갑자기 저는 제가 죄인에게 제공해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분의 온 생애동안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에 그것이 올바른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갔으며, 저의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부지런히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것은 파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하였고, 점차로 성경은 제 영혼에 생수와 산 떡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떨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소망, 391)

제가 연구했을 때 저는 해답을 찾았고, 첫째로 저는 제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율법의 표면을 외관상으로 지킬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하여, 제가 믿음의 순종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생소한 일이다.”(실물, 315)

저는 협조적이 되는 천성적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순종할 것과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저의 순종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구원의 계획에 대해 너무도 무지하고, 이런 것은 그들의 매우 중요한 이 주제에 관하여 보다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다.” 4증언 394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룬 10:2, 3.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며 죄인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자가 되게 한다. 그 까닭은 인간이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며 신성과 인성이 그의 안에서 결합되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온전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순종함이 없이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자신의 모든 수고가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셔야만 한다.”(1기별, 363-364)

제가 저의 발견한 것을 제 남편과 나누었을 때 남편은 탐구하는 일에 저와 합류 하였습니다. 남편은 20년 동안 목회자였지만, 그러나 복음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경륜에 관하여 밝히 알 필요가 있다. 우리의 존재와 영원한 복지에 필수적인 이 주제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이 백 명 중에 한 명도 없다.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는 이 진리가 분명하게 제시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 까닭은 만일 백성들이 이것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면 그의 능력이 깨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RH 9-3-1889)

우리가 연구했을 때, 우리 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하였고, 우리의 생애는 변하였습니다. 곧 우리의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가 그들의 삶속에서 실제의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들 스스로 영적인 생명을 발견하기 위해 연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아들 알렌은 23살이었고, 우리 딸 케릴은 22살이었고 이미 결혼했으며, 우리 막내 로나는 14 살이었습니다.

케릴이 집에 방문차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새로 발견한 경험과 구원에 대한 이해를 그녀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찾던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소리쳤습니다. 우

영원한 삶을 위하여.....

리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을 읽으므로 그분을 아는 데 다다르며, 그분의 가르침들을 이해하는데 이르도록 그녀를 격려하였습니다. 몇 주 후에 그녀가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것 소용없어요! 저는 그냥 말씀만 읽고 있어요. 그것들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녀 역시 피상적인 독서가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들이 생수와 산 떡이 될 때까지 계속 하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막내 딸 로나는 예언의 신의 기록들과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 일 년 동안 학교로부터 집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녀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그것은 크나큰 축복이었습니다!

“영생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 없다. 생명의 떡을 각자가 먹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취함으로 영혼과 육체와 마음이 그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소생함을 얻고 굳세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에 동화되어야 한다.”(목사, 385)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6,17 KRV.

제가 복음의 능력을 제 자신이 경험한 후에, 저는 주님께 저를 저의 아버지와 모든 저의 가족에게 가도록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제가 발견한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나누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확신시켜 주려면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애에서 알아야 한다.”(치료, 469)

“복음은 하나의 생명 없는 이론으로 제시될 것이 아니고 생애를 변화시키는 산 능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소유할 수 있고 당신의 위대한 사랑의 보증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종들이 증거 하기를 바라신다.”(치료, 99)

제가 저의 간증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저는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복음의 구원하는 기별에 응답하신 것을 인해 매우 감사했습니다.

저의 형제자매들 중 몇 명이 제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거예요. 이것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말해줄 수 있나요?”라고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말

을 하라고?” 저는 단지 아이들을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그리스도인 경험에서 참된 그 무엇을 발견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저의 두려움을 가져가주시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 바로 다음 아침에 저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후와 저녁에 또 다른 집회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 후에 그곳 목사님이 제게 와서 말하기를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하며, 저 역시 지금, 제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에 혼란을 일으키며, 예수님께 저희 의지와 심령을 복종시키는 방법을 모르므로 영혼들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그대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교훈을 받기를 원한다.”(전도, 152)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눅 10:25) 라는 질문에서 아무것도 그대들의 관심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이며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각자가 반드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1기별, 171)

“탐구하라! 굶주린 마음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라.”(실물, 111)

“막연한 소망에 불과한 소망은 그대들에게 멸망을 가져다줌이 입증될 것이다.”(1증언, 163)

“많은 사람이 자신의 큰 결핍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결심하지만 아무런 진전을 갖지 못한다. 그들은 유혹을 저항하기에 아주 무력해 보인다. 그 이유는, 그들이 충분히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이 순결할 수 있도록, 그들의 품행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영혼을 철저하게 개혁하려고 하지 않는다. 성품의 모든 결함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교만, 허영, 악한 기질과 탐욕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은 육적인 마음에서 비롯된다.” OHC 336

이 육적인 마음과 정신은 영적인 법을 순종할 수 없으며, 오직 율법의 문자만을 따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중에 의에 대해 무지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니고데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You must be born again

2

그대는 거듭나야만 한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아와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하매” 요 3:1, 2.

“예수께서는 이 인사의 말을 인정하는 대신에 마치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지혜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가 진리의 탐구자임을 아셨다.”(소망, 168)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요 3:3.

“그는 엄한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성전의 봉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의 그의 자선과 관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하늘나라가 그에게는 너무 깨끗하여 들어가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 자기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니고데모는 자기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놀랐던 것이다. 그는 그 비유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 밀접하게 적용하는 것에 화가 났다.”(소망, 171)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하매

..... 그대는 거듭나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되, 너는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때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요 3:4~10.

저는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저의 타고난 본성으로 니고데모처럼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본래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그러므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욥 14:4)다. ... 마음의 넷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므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소망, 172)

“중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의 길이다. 그 길은 좁고, 우리가 들어가는 문은 협착하다. 그러나 우리는 남녀들과 어린이들을 그리로 인도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유전적인 옛 품성의 특성들은 극복되어야 한다. 육신적인 심령의 욕망들은 변화되어야 한다. 모든 기만, 모든 거짓말, 모든 악한 말은 버려야 한다. 남녀들을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새 생애를 살아야 한다.”(9증언, 23)

“나의 형제여, 나는 그대에게 그대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으며 그 마지막은 어떠할까?” 하고 자문해 보기를 간청한다.”(2증언, 295)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잠

14:12.

“니고데모는 ...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소망, 175)

“모든 영혼들의 중대한 부담(burden)은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나의 영혼은 변화되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죄들은 용서함을 받았는가? 나는 중생하였는가?’ 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2SM, 117)

“새로남은 이 시대에 희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것처럼 많은 혼란이 있는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는 아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성화되지 않았고 거룩하지 않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으나, 산 채로 장사되었다. 자아가 죽지 않았으며,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6BC 1075)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교회들과 가정들에 매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 죽으며,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다스리게 할지를 모릅니다.

잠시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침례받기 전에 세상의 죄에서 떠날 것을 가르침 받았습니까? 흡연, 음주, 간통, 도둑질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질문을 하면, 보통 거의 모든 분들이 손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중에 얼마나 침례받기 전에 어떻게 자신에 대해 죽으며, 마음의 죄들-중오, 화, 신랄함, 원망, 조급함, 안달함, 시샘 이런 것들을 바로 포기할 것을 가르침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있을 경우 몇 분만이 손을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마음의 모든 죄들과 함께 어떻게 마음을 바치는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죄들을 짓지 않고 있는 동안 저는 제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의 성품의 결점들을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릴 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요일 1:7)실 것입니다.

“품성에 있는 못마땅한 점은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으로부터 제거된다. 모든 이기적인 것은 추방당하며, 모든 시기와, 모든 악한 말들

..... 그대는 거듭나야만
은 뽑혀져 나간다.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가 마음속-^{한다} 를 거닌다. MB
7-22-1890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고후 5:17.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려 하심 이니라.” 롬 8:3,4.

“율법은 거룩한 것이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는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의에 이를 수 없었다. 만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 한다면,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른 성질의 의를 획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안에서 율법의 완전한 의를 그들에게 주셨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열었더라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할 것이며, 그분의 형상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통해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들에게서 재현됨-를 갖게 될 것이었다.” MB 54,55.

예수님께서 똑같은 오해를 했던 다른 이들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하였습니까?



You Must Have Oil In Your Vessel

3

그대는 그대의 그릇에 기름을 가져야만 한다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의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으며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으나 지혜로운 자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드니라.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 도다. 너희는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그들이 사라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 25:1~12.

이 매우 중요한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등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 비유 가운데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모두가 다 등잔과 기름 담을 그릇

..... 그대는 그대의 그릇에 기름을

가져야만 한다

을 가지고 있었다. ... 그러나 다섯은 그들의 그릇에 기름을 채우지 않았을 것을 소홀히 했다.

“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시기를 확신하며 고대하고 있다. ...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잔과 함께 그들의 그릇에 기름을 갖지 못했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실물, 406, 408)

그들, 그들 자신들이 그 그릇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속으로 성령을 모셔들이지 않았습니니다.

“모두 다 등잔을 가졌는데, 그것은 외적인 종교의 모양이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다섯 명만이 내적인 경건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중에 다섯 명은 은혜의 기름이 부족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지 않았다.” (SD 118)

모두가 등잔에 기름을 갖고 있었습니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그들을 지도해주시도록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다섯 처녀만이 그릇으로 상징된, 삶속으로 성령을 모셔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롬 8:9.

“여기에,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기만이 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그릇됨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믿는다. ... 그들은 그들의 부족을 채우기에 영원히 늦은 때에 그 부족을 발견한다.”(1증언, 417)

저는 어리석은 처녀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니다. 그러나 저는 그릇에 기름을 가지지 않은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실물, 411)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잠

14:12.

때때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아주 잃어버림 당한 사람으로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죄로부터 깨끗케 되며, 생애에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처녀로 대표된 이 성실한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실 때, 그리고 너무 늦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어떠한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의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신 것과 그래서 기름을 얻기에 너무 늦기 전에 저를 깨워 주신 것을 매우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지체하지 말고 등불과 함께 기름을 확보하도록 영혼들에게 간청해야 할 때이다.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품성을 대표하며, 품성은 전가될 수 없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품성을 획득할 수 없다. 각자가 스스로 모든 죄의 얼룩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품성을 획득해야 한다.”(목사, 233-234)

“주의 기구들을 나르는 자들아, 너희는 정결할지니라.” 사 52:11.

“그리스도의 종교는 죄의 용서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을 뜻한다.” (COL 420)

“만일 모든 이들이 받기를 원한다면, 모두가 그(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될 것이다.” (COL 419)

“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 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계발시켜 준다. 그분의 영광의 빛-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취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집으로 가는 신랑의 길을 비취주며,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주게 된다.”(실물, 414)

이 외에 우리가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하는 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You Must Have A Wedding Garment

4

그대는 결혼예복을 가져야만 한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 ...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이는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기 때문이니라.” 마 22:1, 11~14.

“부르심과 의롭다하심은 하나가 아니며 같은 것이 아니다. 부르심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며, 성령을 통해 그 마음에 역사하므로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에로 초청하는 일이다.” (ISM 390)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그러나 오직 결혼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선택될 것입니다. 결혼 예복이란 무엇입니까?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혼인으로써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 되었으며 예복은 혼인 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실물, 307)

“교회에게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고,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義)이기 때문’(계 19:8 엡 5:27 계 19:8 KJV)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실물, 310)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의 의인 나눠주신 성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실물, 312)

많은 이들은 이것을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결혼예복은 단지 분이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빛으시는 그 성품입니다.

“그대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고 그대들의 감정은 이성과 신앙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5증언, 310)

“도덕적인 완전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었다.” (COL330)

“지금은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의 결점을 핑계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아무런 핑계도 할 수 없을 것이다.”(실물, 317)

“하나님께는 순결하고 거룩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품성의 하나의 흠이나, 하나의 주름, 하나의 결점은 모든 영광과 보화가 있는 하늘에서 그들을 영원히 제외시킬 것이다.”(2T, 453)

품성의 흠들과 결점들은 무엇입니까?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고 했으므로, 결점들은 잘못된 생각과 감정이거나, 잘못된 태도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분노와 쓴뿌리, 시기와 질투, 증오, 악한 추측과 그밖에 다른 품성의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 들어오도록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 품성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품성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자신들을 기만하고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마음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품성의 결점들은 이곳에서 회개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남은 은혜의 시간 동안 그것들을 극복해야 한다.” (AH319)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

..... 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누더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일 1:9.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일 1:7.

오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들, 우리의 그릇된 태도들을 그분께 드린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것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엠 5:25~27.

“첫째 부활을 위해 준비될 자들은 오직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일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은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결백하며, 흠이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발견되어야만 할 것을 선언한다.” (ST 2-9-1891)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소망, 555-556)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벨후 2:14.

“도덕적·영적 완전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다.”(행적, 478)

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기만당했음을 발견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예증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You Must Be A Hot Christ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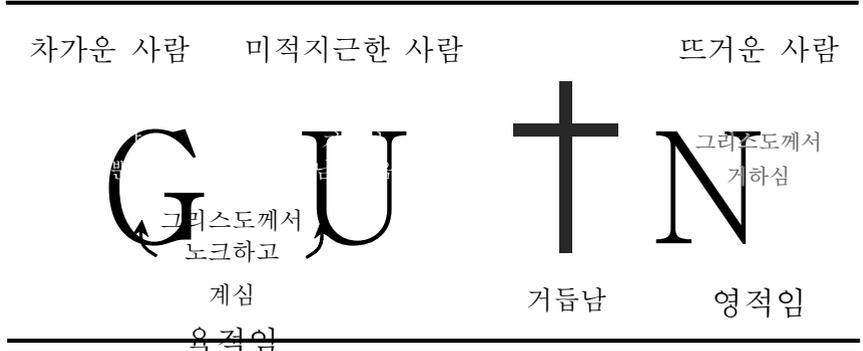
5

그대는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 라.” 계 3: 14~16.

“라오디게아인에게 보내는 기별은 현대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적지근한 공언자들이 다.” (4T 87)

아래의 그림은 라오디게아인에게 보내는 기별에 언급된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미적지근하다”란 뜻이 아니라 “심판받는 백성”이란

..... 그대는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

뜻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죄를 마다} 보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적지근함을 발견하시며, 그분은 그들이 그들의 참 상태를 이해하기를 바라십니다. 뜨거운 사람들은 새로남을 경험한 사람들이며, 날마다 성령께서 그들의 영을 주관하시도록 허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들이 넘어지면 그들은 그들의 죄들을 변명하지 않으며, 신속히 용서와 정결케 하심을 간구합니다. 차가운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적지근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재산을 불렀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가련한 것과 비참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도다.” 계 3:17.

“그들의 생애에 거룩케 하는 능력을 맞보지 못했으면서도, 그들은 모든 진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자랑하는 이들의 상태가 얼마나 분명하게 묘사되었는가.” (ISM 357)

“만일 진리를 공언하는 많은 이들의 내적 생애가 그들 앞에 제시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5T 161)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질투와 자만과, 격노, 나쁜 추측, 쓴 뿌리와 텅 빈 형식주의로 가득 차 있으면서 ‘우리는 주의 전이라, 주의 전이라’ (렘 7:4참고)고 부르짖을지 모른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지식에 대하여 부요하며,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진리가 결핍되어 있는 그분의 공언하는 백성들을 애처롭게 바라보신다.” OHC 349

“그들의 심령 속에는 은혜의 내적인 역사가 결핍되어 있다.”(4증언, 88)

“그들이 전혀 잘못되어 있는데도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는 것보다 더 큰 기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참된 증인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한 기만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 기만을 알지 못함을 보여 준다.”(3증언, 252-253)

저는 기만 가운데서 진실했었습니다. 저는 미적지근함이란 하나님을 위해 충분히 일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한 사업으로 바빴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저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며, 그분께서 정결케 된 성전에 들어오시도록, 어떻게 그분께서 저를 모든 마음의 죄들로부터 정결케 하시도록 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Let Jesus Into Your Heart

6

예수께서 그대의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계 3:20.

“만일 우리가 그분께 허락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기꺼이 영혼의 성전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하실 것인가! 주님께서서는 마음의 문에서 기다리시며 문을 두드리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서는 들어오시지 않고 계신가? 그 까닭은 죄에 대한 사랑이 마음 문을 닫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완전히 포기하기로 승낙 하자마자, 우리의 범죄를 인정하는 순간에, 인간의 영혼과 구세주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장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1기별, 325)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문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쌓아 둠으로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사이에 제거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기 전에 제거해 버려야 할 악한 기질과 이기적 탐심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문 앞에 세상을 놓아둠으로써 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모든 쓰레기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문을 열고 구주를 영접해 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1증언, 143)

“죄를 추방시키는 것은 영혼 그 자신이 할 일이다. 진실로, 우리는 사단의 지배로부터 우리자신들을 자유롭게 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랄 때, 그리고 우리의 큰 필요를 느껴 우리 자신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위해 부르짖을 때, 그 영혼의 힘에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붙어넣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의지의 지시를

받아 순종하게 된다.” (DA 466)

“하나님 앞에서 그대 자신을 낮추고, 영혼의 성전에서 온갖 종류의 쓰레기-온갖 질투와 시기와 의심과 흠잡기-를 버리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약 4:8).’(5증언, 163)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여기 제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의 모든 죄들-저의 원망, 저의 쓴뿌리, 저의 증오, 그리고 저의 죄를 다른 이들의 탓으로 돌리는 노여움, 그리고 참지 못함- 혹은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든지 다 주님께 내놓습니다. 제 마음을 취하셔서 모든 죄로부터 저를 깨끗케 하시고 제 속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제 마음에 오셔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비울 때, 모든 거짓 신들을 영혼 밖으로 추방시킬 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우게 된다.” GW 287

우리가 우리의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게 될 때 절망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성화된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과 협력해야 합니다.



Cooperate With God In Your Salvation!

7

그대의 구원에 하나님과 협력하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완수하라. 이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빌 2:12,13.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몫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결심이나 활동을 해주시겠다고 제의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결심하고 활동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바 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을 대신하는 것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협력하게 하여야 한다. 성령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청년, 147)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지 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의 몫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협력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하나님의 몫

1. 그분께서 그대를 이끄실 것이다.
2. 그분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그대를 깨우치실 것이다.
3. 그분께서 그대에게 회개를 주실 것이다.
4. 그분께서 용서하시고, 깨끗케 하시고, 개심케 하시고 거룩케 하실 것이다.
5. 그분께서 그대 안에 거하시며 능력을 주실 것이다.
6. 그대가 유혹받을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주실 것이다.
7. 만일 그대가 실패하면 그분께서 그대의 중보자가 되실 것이다.

우리의 몫

1. 그분의 이끄심에 저항하지 말라.
2. 그대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의를 필요로 하라.
3. 죄를 자복하고 버리라.
4. 믿으라. 그리고 받아들이라.
5. 믿음으로 살며 많은 열매를 맺으라.
6. 그분의 피할 길을 택하고 그분께 굴복하라.
7.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오라.





He Will Draw Us

8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 12:32.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담당하신 분이요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 증거하므로 마음을 녹이고 누그러지게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일이다.”전도, 264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그분 자신에게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요 3:16,17.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마 1:21.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 53:6.

“완전한 증오심으로 죄를 미워하심으로 주님께서서는 온 세상의 죄들을 당신의 영혼으로 끌어들이셨다. 죄가 없으신 분이로서 죄의 형벌을 짊어지셨다. 결백하신 분이로서 죄인들의 대치물(代置物)로 당신 자신을 바치셨다. 모든 죄에 대한 범죄 의식이 그 놀라운 무게를 가지고 세상의 구세주의 거룩하신 영혼을 압박하였다.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가진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당신 자신께 징벌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주님

께서 인간의 대치물이 되신 까닭이다. 비록 죄의 범과 비역이 아닌 사인의 것이 아니었으나 주님의 심령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되었으며 우리로 당신 안에서 하나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모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1기별, 322)

예수님께서서는 실제적으로 모든 우리의 죄들을 느끼셨으며 그것들의 죄책감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진실로 우리를 그분 안에서 의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의 광야에 들어서시자마자 용모가 변하셨다. ... 세상 죄의 무거운 짐은 주님의 영혼을 압박하였(다). ... 그분께서는 세상을 지배하는 식욕의 방종과 더러운 정욕적인 세력이 인간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온 것을 인식하셨다.”(1기별, 271)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으니, 그분께서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행 3:18 RSV.

“사단이 그리스도를 단 한 가지 유혹이라도 굴복하게 할 수 있었다면, 단 한 번의 행동이나 생각만으로 라도 당신의 완전한 순결을 더럽히도록 할 수 있었다면 흑암의 왕은 인류의 보증인이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승리를 빼앗아 전 인간 가족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끌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를 괴롭힐 수는 있었으나 더럽힐 수는 없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긴 투쟁과 시련의 장면이 되게 하였으나 그의 모든 공격으로 인해 오히려 인류에 대한 그의 지배력을 상실하고 있었다.”선지, 701

“십자가에 달려 있던 그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 그분은 인간이 죄를 대항해서 싸울 때 경험해야 할 것을 충분히 경험하셨다. 그분은 인간이 죄에 굴복함으로써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실제로 느끼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그 끔찍스러운 결과를 실감하셨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죄가 그분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5BC 1082)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뱀전 2:24.

“죄인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떠나 있는 동안, 낯선 나라에서 그의 재물을 허비하는 동안, 그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사모하고 있었다.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는 것은, 그 방랑자를 그의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영의 부드러운 호소며 애원이며 간청이다.”(SC 54)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렘 31:3.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절당하고 학대받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성장했을 때에, 저는 그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느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후에 까지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읽기를 배우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는 병어리 아니면 굼똥이 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를 가르치기 위해 저의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가 22살 때 제가 그것에 대해 알게 됐을 때까지 우리는 그가 난독증(dyslexia)이라는 증상을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가 한 번에 오직 두 글자(알파벳두개씩)밖에 볼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거꾸로 보았습니다. 제가 그의 문제에 대해 그와 함께 나누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오, 엄마,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병어리 아니면 굼똥이 일거라고 생각하는 데, 그러나 제 속으로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쓴 책,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읽기를 마쳤을 때 그는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예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은 언제나 그를 사랑하셨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를 거절하지 않으심을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첫 단계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다(요한일서 4장 16절).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그분께 나아가기 때문이다.”(보훈, 104-105)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지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에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런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소망, 172)



Do Not Resist His Drawing

9

그분의 이끄심을 저항하지 말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을 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사 55:3.

“십자가에서 비취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 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소망, 175-176)

“누구든지 구속함을 받기 위하여 주께 마음을 바치는 자를 그리스도께서는 타락의 구렁텅이와 죄의 가시밭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실물, 188)

“듣고 회개하고 믿기로 선택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길이 명백해졌다. 온 하늘은 죄인들의 협력을 기다리고 있다. 그분의 길에 있는 유일한 장애물은 자기의 뜻대로 홀로 움직이는 자들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만 한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 아무도 그의 의지에 대하여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끄시지만, 결코 강요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RH 3-24-1896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히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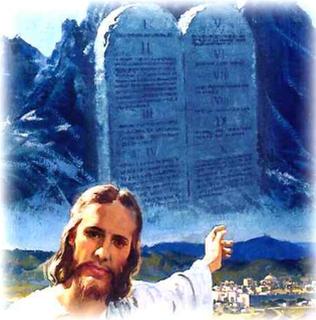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큰 구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 니고데모, 미적지근한 자들, 그리고

저, 모두가 우리는 구원받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참 상태를 알고자 연구하기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리석은 처녀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제 주의를 끌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해가 갈수록 제 양심은 제게 연구하라! 연구하라!! 연구하라!!! 고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제가 바로 착수한다면,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진지하게 탐구한다면, 제가 저의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버지가 제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가서야 저는 드디어 연구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상태를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것처럼 높이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의 순결하심과 탁월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결점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모든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롭다는 두루마기를 입고 있으며 아무 소망도 없이 잃어버린바 된 자들임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일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실물, 159)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깨달을 때 그분께서 무엇을 할 수 있으실까요?

..... 그분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다



He Will Convict Of Sin,
Of Righteousness, And Of Judgment

10

그분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요 16:8.

만일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가 어떤 잘못을 행한다면, 이를테면 속이거나 작은 거짓을 말한다면, 저는 죄진 것에 대한 강한 가책을 받게 되고, 저는 제가 그것을 바로잡고 자복해야 함을 압니다. 그런 죄들은 알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죄들은 어떠합니까?

저의 아버지가 그분의 자녀들에게 화를 내셨을 때, 그분은 자녀들을 탓했으며, 그렇게 하므로 그 자신을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갖게 되었을 때,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만일 제가 참지 못하고 조금하게 된다면, 거기엔 그것을 탓할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가 좋아하지 않거나, 그들이 하기를 원치 않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이기적이었거나 아이들에게 거칠게 대할 때, 저는 그에게 분개했고 그와 논쟁했습니다. 제 마음 속으로 저는 저의 분개함을 남편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시작했을 때까지 제 마음의 죄들을 변명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제가 의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과, 심판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음을 깨우쳐 주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

다. “우리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는 것이다. 통회하는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에 회개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약점들을 잘 알고 계시므로 우리들을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1기별, 353)

영원한 삶을 위하여.....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로 하여금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 가운데서 상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행 26:18.

“하나님께서서는 죄인들에게 아침의 말을 하도록 당신의 기별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치명적인 평안함 속에 빠뜨리려고 평화의 기별을 주지 않으신다. 그분은 범죄자의 양심에 무거운 짐을 두시고 그 심령을 회오의 화살로 찌르신다. 섬기는 천사들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제시함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더욱 느끼게 하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는 외침을 촉발시킨다.”(소망, 104)



Acknowledge Your Guilt
And Need Of His Righteousness

11

그대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의를 필요로 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타락한 이스라엘아, 너는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많은 자니 그런즉 내 분노가 너희 위에 임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인정할지니 이는 네가 주 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렘 3:12,13.

인도에서 돌아온 후에 제가 저의 가족을 방문하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둥그렇게 무릎을 꿇고 우리들 사이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고백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었을 때, 제 자매중 한 사람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심하게 그녀를 잘못 대했는가를 그분이 인정할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할 수 없으셨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그 자신으로부터 보호해드려는 생각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의 어릴 때에 만일 아버지께 책임이 돌아가야만 한다면 그분은 자살하겠다고 울러대셨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팔로 아버지의 목을 감싸고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저의 아버지께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도록 감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이 방문하기 위해 집에 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긴장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어릴 때에 관해서 얘기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매우 심하게 잘못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잘못대하지 않았던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저입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마가렛, 나는 너에게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그분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서 바로 그분의 젊었을 때의 죄들을 토로하셨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이 그분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죄책감을 없애고 싶어서, 2년 전에 재 침례를 받으셨지만 더욱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에게 어떻게 십자가로 나아오며, 그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것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습시다. 그분은 구속의 경륜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부르짖으셨습니다. “마가렛아, 날 도와다오!” 그러나 저는 어떻게 그분을 도와드릴지 몰랐습니다. 저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해보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그런 상태가운데 두고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집으로 왔을 때 저는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탐구 했을 때, 저는 저의 잃어버린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필요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연구했으며,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저의 아버지의 집과 저의 모든 가족들에게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피하며, 그분을 통하여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우리의 죄들을 드러내주신다.” (MB 10)

“죄를 범한 자들은,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려면 어떤 죄를 고백해야 할 것인지 안다. 예수님께서서는, 매우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그들의 생애를 깨끗하게 할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계신다.”(1증언, 156)

“그들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겸비히 하지 아니한 이들은 아직 받으심의 첫째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SC 37-38)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참지 못했거나 속상하게 했다면, 그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탓(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아이들이 불순종했다면, 그들에게는 성년 부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요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훈육에 역사할 수 없습시다. 종종 부모들은 그들이 아이들에게 화를 냈을 때, 그것을 아이들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기들의 잘못과 부모들의 잘못까지

..... 그대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의를 필요로 하라
떠맡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벌합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거나 용서와 치료를 위해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원한의 뿌리가 자라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저와 제 남편이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우리 서로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주관하시게 할지를 모르므로 인해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인정하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러나 구원받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쨌든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대의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께 오라. 그리고 그대의 굳은 심령이 깨어질 때까지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보라. ...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마음의 강한 목적과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효능이다. 성실하고 참된 회개를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효능이다.”
(RH 1901.9.3)

제가 저의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그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저를 초청하고, 또 여행경비를 대주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약 두 달 후에, 제 여자형제 중 하나가 전화했습니다.

“마가렛, 날 도와줘!”

“무슨 일 있니?”

“내 딸이 집을 나갔어. 그 애는 마약을 하고 있고, 어떤 한 남자랑 같이 있어.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몇 달 전에 남편과 나는 예수님과 그의 경험을 갖게 됐어.” 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가 죄인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느꼈어. 네 딸이 와서 우리를 방문할 수 있을까?”

“난 그 애가 어디 있는지 몰라.” 제 자매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 만일 우리가 그 애를 도와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애를 우리에게 보내시도록 기도할게.”

며칠 후에 그녀는 우리가 있는 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가 그녀를 놓아두고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랐으며,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애에게, 그녀가 저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오면 좋겠다고

하더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저의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저녁에 우리가 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소녀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녀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바로 그 때, 문에서 노크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옆집에서 온 목사님의 부인이 서계셨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막 이사를 온 터라 그분을 실제로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남편이 그리스도교에서의 실제적인 어떤 것을 발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것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제게 나눠주시겠습니까? 저를 가르쳐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복음의 능력과 구속의 경륜에 대해 발견한 것을 그녀와 함께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훌륭한 연구를 했으며, 그녀는 아주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내 제 조카딸이 그 방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 분이 떠나간 후에, 제 조카가 “만일 복음에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다면, 제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말하는 거니?”

“제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저는 저의 부모님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교회 학교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의 부모님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선생님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평생 동안을 노력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승리를 얻지 못했다면, 완고한 기질을 가진 나는 포기하는 편이 낫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편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죄를 좋아하며, 제 양심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모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엔 저를 위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고 그러고 나자 잠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음 문을 열어주심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와 함께 계속 연구할 수 있게 되길,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과의 살아 있는 관계를 갖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 문은 닫혀졌습니다! 그녀는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우리는 가끔 그녀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과 어린 아들을 남기고 나는 짐사에게 바넘인 반 신과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픔과 실망을 표현했으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녀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놓았을 때, 저는 제 조카가 들어와서 제가 한 호소들을 들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고자 시도하려고 저를 여기로 초청하지 않았나요?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다른 기회가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올바른 말을 달라고 재빨리 기도했습니다. “아니야, 난 실망하지 않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있어.”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리도록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강요하고 또 강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침례 받게 결심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그 마음을 바쳤습니까?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체험했습니까?

우리는 다른 좋은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그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약 한 주일 후에 그녀가 한 남자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복음을 그 남자에게 전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저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떠난 후에 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너 뭐하는 짓이니? 너는 그를 죄로 인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복음을 그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 남자를 내게로 데려와!”

“예, 저도 압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만 빼고요.”

왜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장애물인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께 그녀의 길에 여전히 서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몇 주 후에, 그녀가 집으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네가 언젠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너의 죄를 포기하려는 노력으로 시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시작해라. 그분의 발아래 앉아서 많은 시간을 보내라. 성경을 읽고, 시대의 소망 책을 읽어라. 그분을 아는데 이르라. 하나님의 사물들로 네 자신을 잠기게 해라.”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났

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니다.

두 달 후에 그녀가 우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두 달 동안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겼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관하여 읽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간신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있습니다! 저의 온 마음과 정신이 예수님께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죄에 대하여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누가 그녀를 회개케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분께 기회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녀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그녀에게 회개를 주시도록 그분께 허용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딸이 변화된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전화로 제게 요청하기를 와서 자기에게도 가르쳐달라고 했으며 저의 경비를 대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저의 모든 가족들에게 가며, 그들에게 나눠주고, 진정한 마음의 회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데 자유롭습니다.

..... 그분께서 그대에게 회개를 주실
것이다



He Will Give You Repentance

12

그분께서 그대에게 회개를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행 5:31.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므로, 그분의 영의 탄원을 통하여 인간들을 회개하도록 설득하신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께서 용서하시는 사람을 먼저 참회하게 하신다.” (ISM 324)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정로, 23)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치리라.” 대하 7:14.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버리, 그분께 바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사람을 스스로 죄를 지며 속임이나 위선 없이 죄를 자백하도록 이끌 것이다.” (SC 40)



Confess And Forsake Your Sins
And Give Him Your Heart

13

그대의 죄를 자복하고 내버리고 그분께 그대의 마음을 드리라

“자기의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죄들을 시인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잠언 28:13.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만일 그들이 그분께 맡긴다면 그분께서는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그들을 깨끗케 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들의 죄를 놓지 않는다면 그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의는 회개하지 않은 죄를 덮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7BC 931)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죄들도 결코 덮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그분께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옛 마음을 그분께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창조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저런 나쁜 습관을 바로잡음으로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곳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첫 번째 일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COL 97)

“내 아들이야,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잠 23:26.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 속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 우리는 사단의 울무에 단단히 붙들어 매인 바 되어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딤후 2:26 흠정역)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해방시키길 소원하신다. 그렇

..... 그대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그분께 그대의 마음을 바쳐라
 게 하려면 전적인 변화, 우리의 온 성실의 생신이 요구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드려야만 한다.”(SC 43)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苦闘)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정로, 43)

“너희는 속이는 욕욕을 따라 썩은 너희 삶의 옛 습관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네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참된 의와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엡 4:22~24 RSV)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소망, 172)

“그러므로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야만 하느니라.” 롬 6:11 RSV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는 다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여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여러분은 이기주의와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투쟁에서 싸우기 위해 사단의 방법을 쓰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속에 참지 못함과 안달함, 원망, 분노, 시기, 질투, 정욕, 증오, 신랄함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굴복할 때에,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오래참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그분의 사랑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분노나 조급함이나 안달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똑같이 저의 반응을 통해 사단이 저를 지배하도록 허용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로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자신에 대해 죽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열한 죄된 본성의 충동에 의해 행동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해도 저의 남편을 원망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이 그들만의 문제들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그 아이들에 대해 참지 못하고 안달하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사단이 그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징계하도록 제 마음에 역사하는 것을 허용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저는 다른 이들이 저의 뜻대

영원한 삶을 위하여.....

로 하지 않을 때 흥분하게 되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죽고 성령께서 저의 영을 지배해주시도록 허용합니다.”

“주님의 손에 그대의 전 존재, 혼과 몸과 영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그분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로, 성화된 매체가 되기로, 그분의 뜻에 의해 움직이기로, 그분의 정신으로 지배받기로, 그분의 영으로 주입되기로 결심하라.” SD-105

“한 번도 자신에 대해 죽은 적이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한 번도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들은 자신에 대해 살아 있을 것이며, 그들이 그대로 죽게 될 때에는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에는 영원히 너무 늦을 것이다.” FE 284.

“하나님 앞에서 그대 자신을 낮추고 영혼의 성전에서 온갖 종류의 쓰레기-온갖 질투와 시기와 의심과 흠잡기-를 버리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5증언, 163)

“우리는 받은 주님의 것이 되고 받은 세상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SC 44

“하나님께서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누인 봉사를 받지 않으신다. 그분은 전부를 요구하신다.” 4T 214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눅 14:33.

하나님께서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그분께서는 무엇을 하셔서라도 우리가 완전히 바치도록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분과 함께 가지 않는 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분열된 마음이나 나누인 보좌의 통치권을 소유하지 않으실 것이다. 애정을 두고 있는 모든 우상과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모든 것들은 보좌에서 쫓아내버려야만 한다.” KH 63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단과도 나누길 원하며 또 성령님 대신 사단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부분적인 굴복은 사단에게 일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영혼의 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지기까지 그것

..... 그대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그분께 그대의
마음을 바쳐라
은 원수의 요새이다.” RH 11-28-1899

“그분은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그분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바칠 때, 바로 그 때에 가서야 비로소, 그분은 당신의 자비의 팔로 우리를 안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때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죄로 더러워진 심령을 드려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정결케 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한다.”(1증언, 160)

“주님께서는 진 존재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굴복되기까지는 그 영혼을 정결케 하실 수 없으시다.” RH 2-27-1900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라. 그리한즉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범죄를 너희에게서 떨쳐버리고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들지어다. ...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하느냐?” 겔 18:30,31.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He Will Forgive, Cleanse, Regenerate
and Free Us To Live The Sanctified Life!

14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셔서
성화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일 1:9.

그분께서 우리의 불의를 얼마나 많이 깨끗하게 하실까요? 전부를. 모든 분노와 질투 그리고 증오와 욕욕과 원한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일 1:7.

“예수님의 귀중한 피는 죄의 더러움에서 영혼을 씻기 위해 준비된 샘이다.” 4T 625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두 가지의 분명한 액체가 흘러 나왔다. 한 가지는 피였고 또 한 가지는 물이었다. 그 피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죄를 씻어 주심을 표상한 것이고, 그 물은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를 상징한 것이었다.”(초기, 209)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신실하도다.” 딤후 3:5~8.

..... 그분께서 새롭게 하셔서 성화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 피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며 그 물은 우리에게 새로 태어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 3:5~7.

“그분의 피를 믿음을 통하여 개심함이 없이는, 죄들의 사함은 없으며, 어떤 멸망해가는 영혼을 위한 비장품(備藏品)도 없다.” COL 113

“삶을 정결케 함, 생명을 지탱시키는 피, 살아 있는 믿음으로 충당됨은 우리의 소망이다.” 7BC 948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골 1:14.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편 51편 10절) 하고 기도했을 때 용서의 참 뜻을 깨달았다.”(보훈, 114)

칭의는 단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고 우리 속에 새 마음과 새로운 태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인간 마음속의 교만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생케 할 수 없다. ...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목사, 456)

“죄인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끌림 받고, 들러진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그 앞에 부복할 때에, 새 창조가 있게 된다. 새 마음이 그에게 주어진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더 이상의 그 무엇도 필요치 않는 거룩함을 입게 된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시다.” COL 163

영원한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는 용서할 뿐 아니라 순결케 하며, 사람들로 거룩한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한다.” KH 336

십자가 위의 강도가 예수님께 굴복했을 때, 그는 용서와 깨끗케 하심과 새로 태어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았으며, 하늘에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후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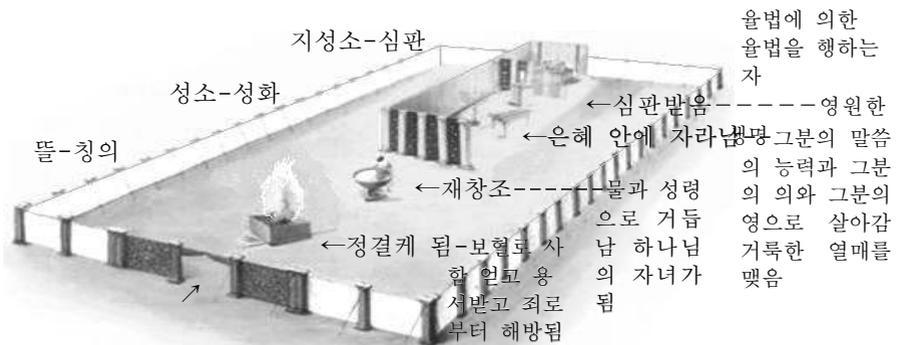
“품성에 있는 못마땅한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으로부터 추방된다. 모든 이기심들이 사라지고, 모든 시기와, 악한 말들이 뽑혀져 나간다. 근본적인 변화가 마음에서 일어난다.” RH 7-22-189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롬 5:8,9.

“그 까닭은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사 ...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골 1: 19,20.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였으므로, 성화라고 불리는 성소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사업인데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너희가 얻은 것은 성화와 그것의 끝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롬 6:22 RSV



..... 그분께서 새롭게 하셔서 성화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사단의 노예가 되기를 살방하시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원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성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을, 곧 혼과 몸과 영을 남겨둬서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것은 공평하게 대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며, 자신과 자기 이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며, 순결하고 이타적이며 거룩하고 집이나 흠이 없는, 하늘을 향한 마음가짐이다.” (OHC 212)

많은 사람들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화란 그들의 죄를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평생의 일이며, 그러는 동안 그들은 언제나 칭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칭의는 죄로부터 깨끗케 하고 새 마음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자라나며,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생애- 곧 성화된 삶을 살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이들이 참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진정한 개심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들을 지배했던 그 똑같은 습관들, 똑같은 혈똥음과 이기심의 정신으로 지배받고 있다.

“참된 개심의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 참된 개심 속에서 영혼은 거듭난다. 새로운 영이 그 영혼의 성전을 점유한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리스도께서 품성 가운데 나타나신다.” RH 7-30-1901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롬 6:22.

“성화는 안과 밖이 거룩한 상태이며, 형식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거룩하게 되며, 남김없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다. 모든 불순한 생각, 모든 음탕한 정욕은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킨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결점을 가려주기 위해 절대로 그분의 의의 예복을 죄인에게 입히실 수 없다.” OHC 214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소망, 555-556)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엡 6:6.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소망, 668)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롬 6:17, 18.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시려고.” 롬 16:25, 26.

저는 율법의 순종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있지만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있는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실물, 97)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애에 실천되지 않을 것인가? … 믿음은 사람을 순종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믿음 곧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정로, 60-61)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까닭은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견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8~10.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부조, 372)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정욕들에



Believe He Can Do It And Accept

15

그분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3:14, 15.

“그대는 그대의 죄들을 고백하고 마음에서 그것들을 내어버렸다. 그대는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하였다. 이제 그분께로 가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대의 죄들을 씻어 없애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라.” SC 49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요 3:17.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쳐들린 뱀을 쳐다봄으로 저들의 생명을 구원했다. 쳐다보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을 의지하여 생명을 구원했다. 것처럼 오늘날의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부조, 431)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로다.” 요 1:29.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은 죄의 본거지로부터 떠날 수 있으며 악의 동맹한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매번 십자가에 접근할 때마다 그의 심령은 순화(純花)되고 그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의 죄였다’고 외치게 될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들을 버리게 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의 품성이

..... 그분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라
 변화된다. 구세주께서는 죄인을 티끌에서 일으키사 성령의 시노 달게 구
 신다. 죄인이 구세주를 바라볼 때 그는 소망과 보장과 기쁨을 찾게 된다.
 믿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은 영혼을 순결케 한다.”(1기별, 349)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죄로 아파하는 모든 영혼의 요청을 기다리
 고 있다. 그것은 모든 영적인 질병을 치료할 것이다. 그로 인해 마음은
 모든 더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정결케 될 것이다.” HP 34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
 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 주시는 일은 그의 영광
 으로 여기시는 바이다.

“많은 사람은 여기에서 실패하나니 즉, 저들은 예수께서 저희를 직접
 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 ... 아무리 죄가
 많은 자라도 저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안에서 힘과 순결과 의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는 저들에게서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의의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는 저들에게 살고 죽지 말라
 고 말씀하신다.”(정로, 52-53)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깨끗케 하실 수 있으
 며 그들에게 새 마음과 정신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포기하는데 한 평생이 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은 거짓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
 든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 여러분은 살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
 아오십시오! 십자가 위의 강도는 믿었으며 그는 즉시로 온전히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시대를 거쳐 모든 나라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죄로부터 개인적
 으로 구원하실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
 님의 뽑힘 받고 선택된 이들이다. 그들은 그분의 특별한 보배이다. 그들
 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세상에서 나오며, 그들 자신을 모든 불결한
 생각과 거룩하지 않은 행실로부터 분리시킨다. ... 하나님의 공언하는 백
 성들의 대다수가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

고 있지 않다는 것은 슬픈 사실이다.” RH 8-1-1893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 20:27.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막 9:23.

“가나의 결혼 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뀌게 한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의 본성에서 모든 악을 근절케 할 수 있으며, 우리를 신성의 참여자가 되게 할 수 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했던 그 동일한 능력이 마음을 순결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무리의 사회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 ST 8-10-1891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롬 1:16.

“너의 믿음대로 되라.” 마 9:29.

“믿음은 그 작동함에 있어서는 간단하며 그 결과에 있어서는 강력하다. 거룩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의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필수적인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데 있어 실패한다. 그들은 영혼을 치료하는 효력을 가져오는 특별한 접촉을 위해 손을 내뻗지 않는다.” 6BC 1074

만일 여러분이 영적 치료를 가져오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분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롬 10:17.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그분의 구원하시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엡 2:1)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소망, 203)

..... 그분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라
성난 태도, 원한, 빈정거림, 안달함, 분노, 시기투의, 즉 그에게 내는 피그노
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으로부터 죄의 속박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
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소
망, 466)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며, 새로운 취향과,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
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위대한 능력이 요구된
다.” RH 3-12-1901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
분과 함께 살리시고.” 엡 2:1~6 KSV.

“하나님의 영께서 영혼을 어루만지실 때 그 영혼의 능력은 소생되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RH 11-12-189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곧 육신을 따라 걷
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
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
하였음이라.” 롬 8:1, 2.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속량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로
거듭나고 변화된 봉사의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셨다.”(MYP 69)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최악
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 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
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 때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
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소망, 173)

이것이 십자가 위의 강도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굴복했을 때 경험한 것이며,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납하심을 보여주는 빛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왔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랑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대권이다”(소망, 751)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그분께서 넘치도록 용서하실 것임이라.” 사 55:7.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용서를 받는 것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마음, 가슴, 혼에 찍힌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전 2:16)다고 말한다.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서만 이르러 올 수 있는 변화의 과정이 없이는 타고난 죄로 향하는 경향이 온전히 마음에 남아 새로운 사슬을 형성하게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깨뜨릴 수 없는 노예의 상태를 부과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옛 취향, 경향, 이상, 생각, 이론을 가지고는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은 그들에게 전혀 기쁨의 장소가 되지 못할 것인데 이는 모든 것이 그들의 취향, 식욕, 경향과 충돌될 것이요, 그들의 본성적 그리고 후천적 품성의 기질과 고통스럽게 반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3기별, 190-191)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 버렸고 너희의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었도다.” 엡4:22-24.

“사람이 하나님께로 개심하게 될 때, 새로운 마음의 취미가 만들어 지고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 RH 6-21-1892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고후 5:17,18.

“구주를 영접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거듭났으며, 참된 거룩함과 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그들의

..... 그분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라
마음은 변화되었다.” ST 12-17-1902

“육적인 생애가 그치고 영적인 삶을 시작할 때 어떠한 승리를 얻게 되는지.” RH 12-2-1875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8:6.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는 육신적인 마음이 영적으로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라고 부르짖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가?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영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가?” ST 11-24-1887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이 되셨는데 ... 인간을 그가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본래의 마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 7BC 926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만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속량(贖良)하신 이들에게 있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을 통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 때에 우리는 모든 품성의 결점과, 모든 죄로부터 깨끗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죄된 성향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떠맡는 분이시다. 요한은 그 백성들에게 그분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의 죄를 가져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고 했다.” RH 4-24-1900

“만일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형성되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시다.” HP 227

“그리스도를 그의 참된 성품 그대로 보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이들은 영원한 삶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며, 믿음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때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DA 388



He Will Live In You And Empower You

16

그분께서 그대 안에 사실 것이며 그대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롬 1:16.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요 1:12.

“이 권능은 인간 대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영혼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는다.”(실물, 314)

“죄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살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죄들과 결점(약함)들을 취해 가신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영혼을 그분 자신에게로 접붙이시며, 그렇게 해서 그는 가지가 줄기에게 그러한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효력(virtue)을 받기까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KH 100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는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요 15:5.

저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그것이 우리를 위해 담고 있는 교훈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임을 몰랐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방도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요 15:5)다고 말씀하셨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서 생명의 샘이 인간의 성품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 그분께서 그대 안에 사실 것이며 능력을
주실 것이다
있으며 그의 체험들을 새롭게 해주고 그의 애정이 하늘도 양하여 흐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1기별, 340-341)

“인간의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요15:5)고 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만이 **christ alone** 생명의 샘이 인간의 본성에 활력을 주고, 그의 취미를 변화시키며, 그의 애정이 하늘을 향하여 흐르도록 하게 set 할 수 있으시다.” ISM 341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나니.” 벵후 1:3.

“하늘의 다함이 없는 공급이 그들의 명령 아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고유한 영의 그 호흡과, 그분의 고유한 생명의 그 생명을 그들에게 주신다. 성령께서는 마음과 정신 속에 역사하도록 그분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신다.” 6T 306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하여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옵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 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엡 3:16-19.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며 은혜 위에 은혜니” 요 1:16.

“그분께서는 그분의 전가된 은혜와 능력을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다.” 7BC 929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 해주시며,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애에 살아 있는 원칙이 된다.” KH 302

“포도나무의 생명이 줄기와 포도송이를 순환하며, 가장 낮은 실뿌리에서 가장 높은 잎사귀까지 전달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도 영혼 속에 타오르고 충만하여 저서 그 존재의 모든 부분에 효력을 주며, 육체와 정신의 모든 활동에까지 영향을 준다.” SD 76

“복음의 신앙은 곧 살아 있으며, 활동하는 원칙으로 그리스도께서 삶 속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품성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선한 일을 하도록 역사하는 것이다.” COL 384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있는 원칙의 외적 행위이다.” COL 97

“마음속에 거하는 의는 외부에 나타나는 의로써 증명된다. 마음이 의로운 사람은 강박하거나 무정하지 않고 날마다 힘에 힘이 더하여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난다. 진리로써 성결함을 받은 자는 자제할 것이며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 주신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눠 주시는 의이다.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며 후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청년, 35)

“그분의 전가된 의를 받으므로,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된다.” 6BC 1098

그리스도를 생애에 받아들이는 것은 첫 번째 의 곧 하늘에 대한 자격증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두 번째 의 곧 하늘을 위한 적합성입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히 13:20,21.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 하시나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골 1:27.

“그분의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재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행동을 주관하신다. ...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아에 집중시킬 수 없다.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시다. 자아는 죽지만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구주이시다.”(목사, 389-390)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온 마음을 바칠 때는 누구나 그것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께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에베소서 5장 18절)고 친히 명령하셨다.”(보훈, 20-21)

“이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기 때문이라. 또한 너희는 ...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골 2:9,10.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 그분께서 그대 안에 사실 것이며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세상에 들어오실 때부터 죄에 물들어 있었고, 모든 일
 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 앞에 서
 계신 이유이다. 우리도 그 충만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만이 우리도 그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7BC 907

“모든 사람은 스스로 산 경험을 얻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마
 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영이 애정을 지배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 고백은 가치가 없고, 그들의 상태는 그들이 진리를 결코 듣
 지 않은 것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5증언, 619)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에 대하여 죽고 거듭나도록 도우시며, 그리스
 도께서 살아 있는 능동적인 원칙과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줄 능력으로써
 우리 안에 사시길 바란다.” 9T 188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다.” MH 115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안에 거
 하라고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입니다. 우
 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지배하시도록 허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혹은 원수에게 복종하고 원수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Abide In Him And Bear Much Fruit

17

그분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는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 15:4,5.

“우리의 생명은 원(原)줄기에서 나와야만 한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와의 개인적인 연합에 의해서, 그분과 매일 매 시간 교통함으로써만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5T 47, 48.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 15:7, 8.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거하실 때에 변화케 하시는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그의 외모에도 마음속에 있는 화평과 기쁨을 증거 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들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시게 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인바 되고, 만일 섬유에서 섬유로 그 살아 있는 줄기와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산열매의 많은 송이들로 그 사실을 증거 하게 될 것이다.”(ISM 337)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 7:16.

“성령께서 맺어 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자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갈 5:22, 23-RSV.

..... 그분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생애에 보여 질 것이며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을 것이다. ... 그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과 동일한 열매를 생산한다.” DA 676

“그대는 이러한 은혜를 소유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가? 누군가가 그대를 반대하고 성나게 할 때에 그대의 마음속에 원통한 느낌과 반역의 정신이 일어나지 않는가? 만일 이것이 그대가 소유한 정신이라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않았음을 명심하라. 그것은 다른 영이다.” RH 12-21-1886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께로서 난 모든 사람들 안에서 드러날 것이다. 불화와 분쟁은 성령으로 지배받는 자들 사이에서는 생길 수 없다.”(5 증언, 227)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나님이시거나 사단이거나 둘 중 한 편이 마음을 지배한다. 그리고 그 생애는 조금의 실수함도 없이 아주 분명하게 그대가 어떠한 세력에 충성을 바치고 있는지 보여준다.” FE 89

“우리가 조금한 성격을 용납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서 내쫓는 것이며 사단의 속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2기별, 236)

“‘너희 자신을 중으로 드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롬 6:16) 된다. 만일 우리가 분노나, 정욕이나, 탐심이나, 증오나, 이기심이나, 그 외의 어떤 다른 죄를 품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마 6:24). 만일 우리가 죄를 섬기면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다.’”(청년, 114)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거나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보훈, 93)

이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제가 제 아이에게 화를 냈다면 거기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진실함, 우아함, 자신을 제어함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의 열매로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볼 때,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으며,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성내며 불친절하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에 의해 지배받도록

영원한 삶을 위하여.....

굴복하는지를 모르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있으면서 까다롭거나 참지 못하게 될 수 없다. 까다롭고 참지 못하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RH 8-14-1888

“참지 못하는 그대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와 인간을 불러들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을 내쫓는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거하신다면 그대는 성난 말들을 할 수 없다.” HP 99

“이는 성령의 열매가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엡 5:9.

“그대들은 그대 자신의 기질을 만족시키면서, 그리고 그대들 자신의 길로 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남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유희에 굴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약이 올라 성내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유전된 성향들과 싸워야만 한다.” RH 10-11-1892

“성급함에 굴복하는 사람은 사단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너희 자신을 증으로 드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4 증언, 607)

“사단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모든 마음을 지배한다.”(목사, 79)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있어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대가 교만심, 자부심, 지배욕, 허영심, 불경건한 야망, 불평, 불만, 매정함, 험담, 거짓말, 기만, 중상모략 등을 품고 있다면, 그대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내재하고 계시지 않으며, 그 증거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사단의 마음과 품성이 그대에게 있음을 보여 준다.”(목사, 441)

“교만과 이기심은 그분을 내쫓는 일이 없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들의 품성 속에서는 있을 곳이 없음을 발견한다.” RH 11-24-1885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후 13:5.

“그러나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지 알 수 있는가?’ 만일, 그대가 그대의 방법에 대해 비판받고 지적당할 때, 일들이 그대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 그분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라
대로 되지 않을 때, 만일 그 때에 그대가 교성을 받으며 진실하고 오대
참게 되는 대신에 그것들이 그대의 걱정을 일어나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RH 7-12-1887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다 말하고 어둠 가운데 걸으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일 1:5-7.

“교만과 알력과 높고자 하여 다투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서는 그리스도와와의 교제에 들어갈 수 없다.”(소망, 650)

“무엇이 진리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영과 말과, 행동으로는 그리스도가 아닌 사단을 나타내는 것이다. 악한 것을 추측하며, 참지 못하고 용서치 않는 것은 진리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과 인내, 오래 참음은 진리의 원칙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진리는 언제나 순결하며 항상 친절하고, 이기심이 섞이지 않은 하늘의 향기를 호흡한다.” KH 185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마음속에 이기심이 살아 있을 수 없는 것은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다.”(5증언, 48)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요일 1:5.

“오직 죄로부터 깨끗케 되기를 기꺼워하는 자들만이 그분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오직 마음이 순결한 자만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었다.” DA 108

“우리 주께서는 당신을 섬기노라 하면서 당신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는 자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신다. 따라서 무리들은 기만을 당하고 거짓된 길로 인도된다.”(소망, 438-439)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영원한 삶을 위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시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죄를 지을 수도 없나니 그 까닭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죄를 지을 수도 없나니 그 까닭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요일 3:7~10.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은 우리가 그의 제자인 체 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질로 사단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3BC 1160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요일 4:7, 8.

“만일,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 되는 자아 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생애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보훈, 25)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로 알 것이지요, 그분을 아노라 말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요일 2:3~6.

“오” 그대는 말할 것이다. ‘저는 계명들을 지킵니다.’ 정말 그러한가? ... 그대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을 그대의 가정에서, 그대의 가족에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대는 가족사회에서 버릇없음과 불친절, 무례함을 절대로 나타내지 않는가? 만일 그대가 그대의 가정에서 불친절함을 나타낸다면, 그대의 공언함이 얼마나 높든지 간에 그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가정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실패한다면 그대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율법들을 다른 이들에게 설교하든지 간에 그대는 율법을 위반하는 자이다.” RH 3-29-1892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과 청년들은 그들의 가정생활에서 보여준 것에 따라서 하늘의 저울에 달려진다.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이다.” 5BC 1085

..... 그분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런 결과로서 모든 다른 은혜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를 소유하게 할 것이다.” ML 50

“악한 성질을 이겨야 할 것과 자아를 정복해야할 필요성을 결코 느껴본 적이 없는 많은 이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신랄함과 격노함을 소중히 여기며, 이런 악한 특성들로 영혼을 더럽게 한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다른 이들의 길을 어둡게 한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성질들의 표출됨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며, 수천의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 하늘을 놓치게 될 것이다.”

ST 12-17-1885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공언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이 생애의 모든 관계들에서 그들을 더 나은 남자와 여자-성품과 기질에 있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들은 전혀 그분의 것이 아니다.” ML 257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전 6:17.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 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이런 모든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고 선언한다.”(소망, 357)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들 가운데서(In their sins 죄 있는 채로) 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from their sins 죄 자체에서) 구하려고 오셨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율법을 순종함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주께 가납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구원에 대한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 만일 그분의 영이 마음속에 거한다면 죄는 마음에 머물 수 없다.” RH

3-16-1886

“죄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해주고, 죄인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해주는 종교는 다만 죄인으로 하여금 그가 죄를 범하고 있는 줄 알면서 그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를 받아 주실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해 줄 뿐이다. 이것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바이다. 진리가 생애와 분리되어 있는 바, 그것이 영혼을 각성시키고 회심시킬 능력이 없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5중언, 540)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품성 계발을 위한 능력을 달라고 그분을 부르는 자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우유부단하지 않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죄들을 섬기지 않으실 것이다. ... 오직 신실한 회개에 의해서만 그들의 죄들을 용서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죄악을 그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SD 13

“하나님께서 거룩한 아담에게 두루마기처럼 입히셨던 영광의 빛으로 된 옷은 그가 죄를 범한 후로 벗겨지고 말았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불순종과 죄를 덮어 줄 수 없다.”(1기별, 270)

“나는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말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인 이들은 결코, 결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섬기실 것이라는 인상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1기별, 115)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출연하시기 위해 지성소 안에 서 계신다. 거기서 그분은 그의 백성을 순간순간마다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제시하기를 멈추지 않으신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비를 악용하고, 부주의하게 되고, 무관심하며, 자아방종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사역자(minister of sin)가 아니시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할 때에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7BC 933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minister of sin)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는 만일 내가 혈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기 때문이라.” 갈 2:17, 18.

“의지의 지속적인 복종과 끊임없는 순종에 의해서 칭의의 축복을 유

지할 수 있다.” ISM, 397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인을 격려하면서 ‘그대는 무사하다’고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다.” RH 6-8-1886

“또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 주고는 평안이 없는 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기 때문이다.” 렘 8:11.

“율법을 범하는 생애 가운데는 안전함이 없고 평안과 정당성이 없다. 인간이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로 서기를 바랄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다. 그는 죄짓는 생애를 그쳐야 하며 충성되고 진실하게 되어야 한다.”(1기별, 213)

“거짓된 일로부터 네 자신을 멀리하며 ... 이는 내가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출 23:7.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로우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며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가릴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이전에 그 심령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보유(保有)하기 위하여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하여야 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활동적이며 살아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을 순결케 하여야 한다.

...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믿음이 마음의 모든 애정과 충동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해야 한다. 또한 믿음 자체가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순종에 의해서이다.”(1기별, 366)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18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접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딤후 6:12-14.

“영혼이 개심했을 때에라도, 그들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 다음 그들에게는 달려야 할 경주가 있다. 그들 앞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힘든 투쟁이 놓여 있다. ... 그 전쟁은 평생 동안 계속되는 것이다.” OHC 163

“그러므로 ...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 12:1, 2.

“그 무거운 것들은 ... 악한 습관과 타고난 경향을 좇아 행함으로 생긴 나쁜 버릇을 뜻하는 것이다.” 7 BC 934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올 때에, 우리의 모든 옛날의 죄된 습관들과 버릇들을 내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옛날의 습관대로 살려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각 영혼마다 어떤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품성의 특성을 물려받았다. 이런 그릇된 성향들을 제어하는 것은 장대하고 고결한 평생의 사업이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제어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작은 것들이다.” HP 231

“날마다 그는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쥐려고 분투

할 것이다.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노력해야 한다.”(행적, 477)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이 저항하신 것같이 우리는 저항해야 하며, 그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려고 한다면 그분이 고민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민하여야 한다.” KH 34

“우리는 구세주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자들의 상태에 있지 않게 하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우리의 품성의 악한 특성들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있으며 또한 그분 안에서만 힘을 발견할 수 있다.” RH 3-17-1981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 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奸計)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지니 그 까닭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엡 6:10-12.

“모든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경계하는 위치에 서서 사단이 접근할 수 있는 영혼의 모든 통로를 지켜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동시에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모든 경향을 단호히 저항해야 한다. 용기에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 끈덕진 노력에 의하여 그는 정복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매일, 매 시간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합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길밖에 없다.”(5증언, 47-48)

“모든 기도와 간구함으로 영 안에서 언제나 기도하라. 모든 인내로써 경계하며...” 엡 6:18 RSV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혹에 대하여 안전하다 하여 자신이나 혹은 감정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 COL 155

“깨어 있으며, 믿음에 굳게 서고, 용감하게 되며, 강하게 되라. 너희의 하는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고전 16:13 RSV

“성급하게, 신경질적으로, 참지 못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대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대가 악한 정욕을 정복하는 대신에 그것이 그대를 정복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FL 224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만 한다.”(GC 425)

“시험받는 사람은 의지의 참된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람의 성격 가운데 있는 지배력, 곧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모든 일은 올바른 의지의 활용에 좌우된다. 선과 순결에 대한 욕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기질들을 정복하고자 바라고 소원하는 동안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력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애정을 지배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는 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의 온 성격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의지력의 올바른 활용을 통하여 완전한 변화가 생애에 이루어지게 된다.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굳게 붙들어 줄 능력을 위로부터 받는다. 순결하고 고상한 생애, 식욕과 정욕에 승리하는 생애는 연약하고 요동하는 인간의 의지를 전능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에 결합시키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치료, 176)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에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할 수 있는 것들이다.”(실물, 333)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어떤 진정한 개혁도 성취될 수 없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벽(性癖)을 방지하기 위한 인간적 방호벽은 마치 급류(急流)를 막으려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애에 생기를 주는 능력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안과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다.”(치료, 130)



He Will Help You
When Tempted And Make A Way Of Escape

19

유혹받을 때에 그분께서 그대를 도우실 것이며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 10:13.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시험이 신자에게 이르러 오도록 허락하기 전에 모든 시험을 재고 달아보신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시험과 검증을 받을 사람의 형편과 능력을 고려하시며, 저항할 능력보다 더 큰 시험을 결코 허락지 않으신다. 만일 그 영혼이 압도된다면, 그 사람이 억눌린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질 수 없다. 유혹받는 자가 깨어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풍성하게 마련해 놓으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쟁의 때에 한명의 신자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 신자는 약속을 주장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와 맞서야만 한다.” OHC 323

만일 여러분이 진실된 신자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은 받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분께서 피할 길을 마련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할 길을 택해야만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를 이해했을 때, 저는 제 마음의 모든 죄들과 함께 저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들볶고 참지 못하게 되는 저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특별히 제 남편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를 원망하는 저의 권리

를 포기합니다. 남편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제게는 남편을 원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제가 다른 사람을 나무라기 위해 사단의 영에게 굴복해야 합니까? 저는 당신의 성령께 굴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저를 사용하여 그의 영을 우리의 가정으로 불러오도록 허락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저의 자녀들과 제 남편을 대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허용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을 때에, 저는 그분께서 저의 원한을 가져가시고, 또한 제게 제 아이들과 남편을 향한 이해하는 마음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또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같이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 주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일하러 갔으며, 저녁때까지는 아무런 시험도 제게 오는 것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제가 기도력을 읽고 있는데 편집인이었던 제 남편이 갑자기 책속에 있는 잘못된 문장을 지적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한 것에는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저는 예배드릴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정신으로 남편을 나무랐고 예배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비난했었고 때문에 예배를 망친 것입니다.

남편이 그 문장을 지적했던 그 저녁에, 저는 즉시로 반응했었습니다. 바로 그 때 성령께서 제가 죄지었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즉시로 저는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크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자백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분과 나누고 있을 때, 그 예배에 참석했던 제 아들이 그 일을 기억하고 “오, 어머니, 제가 그 저녁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때는 제가 어머니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들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이들과 불화하게 됐을 때, 그것이 저의 잘못된 정신 때문에 생긴 것일지라도 그것을 항상 다른 이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한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화내도록 우리 자신을 허용할 때에 다른 이들을 비난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 저녁에 저는 다시 하나님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분 자신에게로 저를 회복시켜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된 뜻에 다시는 반응하지 않도록 제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분께서 제게 가르쳐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

.....면 그분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음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 저는 일하러 갔으며 다시 그 저녁이 될 때까지는 어떠한 시험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드릴 때에 제가 그 똑같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시 제 남편이 문장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즉시로 저는 반응하려는 유혹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충동을 느낄 것이라고 읽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시로 성령께서 제게 ‘너는 너의 남편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를 원망할 권리를 포기했음을 기억하지 못하니?’ 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즉시로 성령님께서 저의 영을 지배하셔서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제가 유혹받았던 것을 모릅니다. 저는 제가 피할 길을 발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신속히 하나님께 굴복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영을 지배할 권리를 소유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후에 저는 이 인용구를 발견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네 뒤에서 나는 말을 네 귀가 들을 터인즉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걸으라, 할 것이며” 사 30:21.

“하나님께 의해 발해진 음성은 외치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걸으라 한다. 만일 사람들이 경고의 음성을 듣는다면,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유한한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HP 103

시험을 받는 바로 그 때에 신속하게 하나님께 굴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선택하도록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감화에 매우 민감하여 예수님의 아주 작은 속삭임이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 KH 361

“만일 한번 예수님의 음성에 유의하지 않게 된다면, 많은 다른 음성들에 의해 마음이 혼란하게 될 것이다.” 7BC 967

“비웃음들, 헐뜯는 것들, 경멸하는 한 마디 말들이, 가장 작은 점에서 양심을 어기도록 그대를 부추기게 허용하지 말라. 그렇게 하여 사단이 들어와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문을 열지 말라.” SD 211

“양심은 인간의 욕망의 갈등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것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이 거절될 때 하나님의 영은 몹시 슬퍼하신다.”(5증언, 120)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엡 4:30.

“성령께서는 어떤 정해진 행로를 택하도록 사람들을 강제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이며 우리의 의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FE 124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살전 5:19.



Take God's Way Of Escape And Submit To Him

20

하나님의 피할 길을 취하고 그분께 굴복하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약 4:7, 8.

이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승리를 얻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셨다. 그는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약 4:7, 8). 우리는 유혹자의 세력에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다. 사단은 인류를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계교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잠 18:10)다.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어져 도망할 것이다.”(소망, 130-131)

“주께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뱀후 2:9.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없이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으시다.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힘과 기능들을 통하여 일하신다.”(행적, 482)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려고 마음먹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대리자와 협력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신다.” HP 27

“아무리 사단이 온 힘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단순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는 영혼은 결코 정복할 수 없다.”(실물, 157)

우리가 유혹을 감지할 때에, 우리는 신속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쌀 것이며, 유혹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모든 영혼 주위에는, 만일 유혹받는 사람이 오직 악을 저항하는 정신을 보여줄 것 같으면 의의 표준을 들어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다.” RH 8-8-1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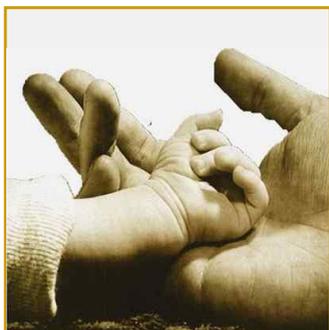
“믿음과 기도로써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죄를 범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먼저 그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정욕이 이성을 지배하거나 불법이 양심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심령이 범죄 행위를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코 죄에 대한 구실은 되지 못한다. ‘여호와와 의인은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시 34:15). 시험을 받는 사람이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속절없고 무가치한 자신을 예수께 맡기라.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라. 주께서는 들으실 것이다. 주께서는 사람의 본능적 성벽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다”(청년, 67)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히 2:18.

제가 시험받을 때에, 매 번마다 즉시로 그분께 굴복하므로 저는 하나님의 피할 길을 취하였으며, 그분께서는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든지 그것을 위해 제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단련되어 순수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도다.”

사무엘 하 22:31



He Is Able To Keep You From Falling

21

그분은 그대를 넘어짐에서 지키실 수 있다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넘치는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 유다 24.

“이는 나 주 네 하나님께서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사 41:13.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모든 것에 강하시며 만일 우리가 넘어진다면 우리를 향해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손이 우리를 붙들실 것을 확신해야만 한다.” SD 154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체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공혹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5, 16.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고후 12:9.

“네 날들이 어떠한 같이 네 힘이 그러하리로다.” 신 33:25.

“우리는 한 번에 오직 하루만을 살아간다. 우리는 몇 시간 안에 평생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날마다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FL 249

“그대는 승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육육과 식육과 정육에 정복당하고 있는가?”(5중언, 511)

영원한 삶을 위하여.....

“만일 우리가 승리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한 유일한 희망은 매 시간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연합시키고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보훈, 143)

“그리스도인 생애는 날마다 드리고, 굴복하고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4BC 1154

우리가 예수님께 바치기 전에 우리는 많은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번에 한 계단씩 오르듯이, 한 번에 한 순간씩 사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그분께 굴복한 상태로 살며 그분의 능력을 의존한다면 그 습관들을 이기는 승리를 계속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게 해 준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바른 길에 굳게 서게 해 주고 그 길에서 그를 지켜 줄 수 있는 유일의 힘이다.”(치료, 115)

“그러므로 내 아들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담후 2:1.

“그분께서 그를 죄짓는 것에서 지키실 수 있음을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넉넉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입장권을 가져올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RH 3-10-1904

모두가 유혹을 받을 것이다-유혹은
죄가 아니다



All will Be tempted-Temptation Is Not Sin

22

모두가 유혹을 받을 것이다 유혹은 죄가 아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만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약 1:13-15.

“시험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유예 기간에 검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검증이며,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유혹이 있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유혹에 굴복하게 될 때, 죄가 들어오게 된다.”(4중언, 358)

유혹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유혹에 직면했을 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신속히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상대해야만 하는 죄된 육적인 본성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서도 똑같이 우리가 받는 유혹들을 느낄 수 있는 죄된 육적인 본성을 취하셨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된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 없다. 사단은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가 각 사람에게 와서 인간의 선천적인 약점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거짓말로 울무에 빠뜨리려 할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땅을 먼저 통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소망, 122-123)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요 14:30)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안에는 사단의 궤변에 반응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소망, 123)

“비록 최고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괴롭히는, 사단에 의해 일으켜지고 암시되는 생각들과 느낌들이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것을 품지 않고, 증오하여 거절한다면, 그 영혼은 죄로 인해 오염되지 않으며 다른 무엇도 그것들의 영향으로 더럽혀질 수 없다.” RH 3-27-1888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받을 불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쟁투, 623)

“불순한 생각이 용납되면 부정함 욕망을 품게 되고, 심령이 더럽혀진다. 그리고 그 고결함이 손상된다. ...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는 바로 처음부터 죄를 피해야 한다. 모든 감정과 욕망은 이성과 양심에 굴복되어야 한다. 모든 거룩하지 않은 생각은 즉시 배척되어야 한다.”(5증언, 177)

“마귀에게 아무 기회도 주지 말라.” 엡 4:27 RSV.

“한 순간도 사단의 유혹이 그대 자신의 마음과 조화된다고 인정하지 말라. 사단 자신에게서 돌아서듯이 그것들에서 돌아서라.” OHC 85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고후 10:5.

“그대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고 그대들의 감정은 이성과 신앙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그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과 감정을 제지하지 않고자 걱정할 것 같으면 그대들은 악한 천사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고 그들의 제재와 지배를 자초하게 된다.”(5증언, 310)

“우리는 충동에 의하여 행동하도록 우리 자신을 허락할 수 없다. 우리는 한 순간이라도 방심할 수 없다. 무수한 유혹에 에워싸여 있으므로 우리는 굳세게 저항하든지 아니면 정복당하든지 해야 한다.”(MH 452)

“사단의 계획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한다. 불순한 생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을 읽고, 보고, 듣는 일을 피하여야 한다.”(청년, 285)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시 101:3.

..... 모두가 유혹을 받을 것이다-유혹은

죄가 아니다

“불순한 장면을 상상함으로 쾌감을 느끼는 사람, 악한 생각을 품고 호색적인 표정을 짓는 사람은 드러난 죄 속에서 그것으로 인한 수치와 마음을 찢는 슬픔의 고통을 느끼며 그가 영혼의 골방에 감추어 둔 악의 참 특성을 보게 될 것이다.”(보훈, 60)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같이 그 사람도 그러하기 때문이라.” 잠 23:7.

“악한 제의가 맨 처음 들려올 때에, 하늘로 기도를 쏘아 보내라 그리고 유혹을 굳세게 저항하라.” 3BC 1155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 약 1:6.

“유혹에 굴복하기 시작하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도록 허용하는 죄에 빠지는 것이며, 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변덕스럽게 되는 것이다. 악한 자는 하나님을 그릇 나타낼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으며, 마음을 금지된 사물로 이끈다. 만일 할 수만 있다면 그는 마음을 세상의 사물들에 붙들어 댈 것이다. 그는 감정을 흥분시키고, 정욕을 일으키며, 그대에게 유익하지 않은 사물에 애정을 붙들어 매려고 애쓸 것이다. 그러나 이성과 양심에 조용히 굴복하므로 모든 감정과 정욕을 통제하는 것이 그대의 일이다. 그러면 사단은 마음을 지배할 능력을 잃게 된다.” OHC 87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이는 기록되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음이니라.” 벰진 1:13-16.

“유혹자의 힘이 그릇된 행동에 대한 구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품성의 결함에 대하여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환호한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핑계이다. 죄를 범하는 데에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소망, 311)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 하라.” 엡 6:10.

“그분께 기대어라. 그러면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그대는 대적의 모든 불화살들을 물리칠 것이며 정복자보다 더 크게 될 수 있다.”(4T 213)



Walk By The spirit-
Do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Flesh

23

영으로써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지 말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갈 5:6,17.

“그리스도인은 죄의 충동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령은 육체를 대적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계속하신다.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 되는 곳은 바로 이곳이다. 인간의 연합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되고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 15:57)라고 부르짖는다.”(청년, 114)

“그리스도의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승리는 우리자신들을 제어하는 것이다. 우리의 선천적 성향들은 제어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길 수 없다.”(4증언, 235)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히 4:15)으셨다. 사단은 매 발걸음마다 그분을 공격하고 그분에게 가장 심한 유혹을 제시해 주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벧전 2:22)셨다. 그분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고,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에 비례하여 고통을 겪으셨다. 그러나 흑암의 왕은 그분에게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유혹에 반응한 단 하나의 사상이나 감정도 찾지 못했다.”(5증언, 422)

“그분께서는 급하고 노한 말을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견디

기 힘든 시험을 받았지만 그분은 결코 한 번도 그의 입술도 죄를 멈추지 않으셨다. 오래 참음과 평온함으로 그는 동료 일꾼들의 멸시, 비웃음 그리고 놀림에 맞서셨다.” 7BC 936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셨다. 그는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였고 때문에 그의 일이 불필요하게 어려웠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속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고난들을 초월하여 사셨다. 그는 난폭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보복하지 않으시고 모욕을 참을성 있게 견디셨다.”(소망, 8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빛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이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으로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임이라.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아바 아버지, 라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롬 8:12-17.

“그리스도께서는 능욕과 모독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그분은 자기가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치르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셨다.”(소망, 700)

“그대는 그분을 짓눌렀던 무게와는 다른 무게로 짓누르는 어려움이나, 그분의 심령이 경험하지 못했던 슬픔을 갖고 있지 않다. 그분의 감정은 그대의 감정과 마찬가지로 친구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무시와 무관심으로 쉽게 상처받을 수 있었다. 그대의 길이 가시밭길인가? 그리스도의 길은 10배나 더한 가시밭길이었다. 그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분도 고통을 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모본이 되시는 것은 얼마나 적절한가!” OHC 59

“이는 참으로 너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로 하여금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

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뱀전 2:21-23.

“비록 그분께도 인간적인 육육의 모든 세력 이 있었을 지라도, 그분은 결코 순결하지 않고 고상하지 않으며 품위 없는 하나의 행동도 하지 않으셨으며, 그런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HP 155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는 자기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뱀후 4:1, 2.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 5:24.

“저열한 욕정은 몸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을 통하여 일한다. ‘육체’ 또는 ‘육체의’ 또는 ‘육체의 정욕들’ 이란 말은 그 저열하고 타락한 성격을 포함한다. 육체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몸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할까! 아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죽게 해야 한다. 부패한 생각은 추방되어야 한다. 모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한다. 모든 동물적인 경향은 심령의 더욱 높은 능력 아래 복종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보좌를 차지하셔야 한다. 우리의 몸은 그가 사신 소유로 간주되어야 한다. 몸의 지체들은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가정, 127-128)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하여금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롬 6:12, 13.

“인간 대리자들은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며 복종시켜야 할 모든 감정들을 지배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며 그의 정신과 기질과 행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은혜를 얻어야만 한다.”(1기별, 380)

..... 영으로서 행하라-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임이라.” 롬 8: 13.

“그대의 전 존재를, 혼과 몸과 영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라. 그리고 그분의 뜻에 의해 움직이고, 그분의 정신으로 지배받고, 그분의 영으로 채워진, 그분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로 결심하라.” SD 105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일 2:15-17.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히 10:23.



Take Heed Lest You Fall

24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형제들아, 혹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하나라도 있지 아니할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하나라도 죄의 속임을 통하여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 3:12, 13.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에 그는 사람 자신의 선택 외에는 아무런 능력으로도 능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써 당신 자신을 인류에게 붙들어 매셨다. 사단은 항상 이 줄을 끊도록-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끊도록-여러 가지 유혹들로써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깨어서 애쓰며 기도할 필요가 있나니 그리하여 어떠한 유혹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른 주인을 선택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대개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할 자유가 있는 연고이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항상 그리스도만 주목하면 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정로, 72)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모든 것에 강하시며 만일 우리가 넘어진다면 우리를 향해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손이 우리를 붙들 것을 확신해야만 한다. 하나님 한분만이 도움을 위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실 수 있다.” SD 154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고 지배받지 않으면 한 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 OHC 187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고전 10:12.



He Will Be Your Advocate If You Fall

25

관일 그대가 넘어진다면 그분께서 그대의 변호자가 되실 것이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일 2:1.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셨으며, 말씀하시기를 ‘그 형벌이 내게로 떨어지게 하라. 내가 사람의 자리에 설 것이다. 사람은 다른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1BC 1075

“주 예수님께서서는 영혼이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주의하시는지. 그분은 사단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얼마나 영혼을 방어해 주는지. 만일 온갖 유혹으로 우리가 놀라고 속아서 죄에 빠지더라도, 그분은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시며 우리가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의 구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 7BC 948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그 까닭은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히 7:25.

베드로가 그의 주님을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으며 그를 도와주길 갈망하셨습니다.

“사람을 죄 가운데로 이끌고, 그들을 절망과 공포 속에 빠지게 하며, 용서를 위해 간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계획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사 27:5)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가? 우리들의 연약함을 굳세게 하기 위한 모든 방편이 준비 되어 있고 그분께 오라는 온갖 격려와 초청이 주어져 있다.”(실물, 156)

중증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 부모들은 그들을 꾸짖고 벌을 주며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다만 면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로다.” 시 103: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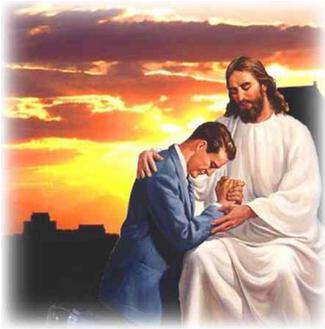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과실로 인하여 예수의 발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자주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지 말 것이다.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실패를 당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거나 싫어하는바 되거나 배척을 당한 것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증보 하신다. 요한은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고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요 16:27)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지 말라. 그는 그대를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그대에게서 반사됨을 보시고자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기만 하면 그대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확실히 믿으라. 우리 자신의 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구주의 능력을 의지하자. 그리하면 ‘내 얼굴을 돕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정로, 64)

“모든 것이 틀러지고, 모든 것이 잘못되고,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만일 잘못된 자가 하나님의 영의 깨우침으로 솔직하여 저서, 그의 잘못을 보고 겸손함으로 죄를 자복하게 된다면, 그 때 그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KH 238

“그대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자비와 용

..... 그분께서 그대의 변호자가 되실
것이다
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 자비는 시금노 여전히 죄인에게
뻔혀져 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동안 내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
쳐 주리라’(렘 3:22). 만일 우리가 호소하는 성령의 음성에 유의할 것 같
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
쌍히 여기는 것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
니’(시 103:13).’(5증언, 177)

“주 너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므로 너희가 그분께
돌아오면 자신의 얼굴을 돌이켜 너희를 떠나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대하
30:9.



Repent And Confess And Turn Back To Him

26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분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라. 그리한즉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범죄를 너희에게서 떨쳐버리고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들지어다.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자신을 돌이켜서 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겔 18:30-32.

“만일 우리가 정복당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고, 우리를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을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하자. 만일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로 오는 정결케 하는 능력은 우리의 것이다.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값없이 제공되었다.” HP 50

“주께서는 ...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혹 실수하고 그분의 영을 슬프시게 할 수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 그릇된 감정들과, 교만, 자만심, 조급함,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킨다. 죄들은 자복해야만 하며 마음속에 은혜의 깊은 역사가 있어야 한다.” FW 35

“율법을 범하는 생애 가운데는 안전함이 없고 평안과 정당성이 없다. 인간이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로 서기를 바랄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다.

그는 범죄 하는 생애를 그쳐야 하며 충성되고 신실하게 넘어야 한다.”(1기별, 213)

“그대가 죄 가운데 머무는 매일은 사단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이며, 그대가 회개함 없이 병들어 죽게 된다면 그대는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RH 12-24-1889

“회개하지 않은 하나의 죄는 그대를 향해 하늘의 문을 닫게 하기에 충분하다. 사람에게 하나의 죄의 오점이 있다 하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려고 오신 것이었다.” ST 3-17-1890

“그대의 유일한 안전은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이며, 바로 이 순간에 죄를 그치는 데 있다. 그 연민의 친절함 음성은 오늘 그대의 귀에 울리고 있으나, 누가 내일도 들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ST 8-29-1892

“너희는 만날만 한 때에 주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그분께서 넘치도록 용서하실 것임이라.” 사 55:6, 7.

“사람이 거룩하고 자비로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을 때, 눈물과 영혼의 비통함 가운데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의 잘못들을 고백하는 것만큼 고상한 길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에게서 요구하신다. 그분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영 외에는 아무것도 가납하지 않으실 것이다.”(4증언, 178-179)

“주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도다.” 시 34:18.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별 있게 움직여야 한다. 그들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기까지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납하심을 믿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요 의무이다.” 1T 166

하나님께서서는 항상 알고 있는 죄들을 다루십니다. 우리는 모든 은밀한 죄들은 알고 있는 죄들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은밀한 죄들은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바쳐지고 고백되고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심, 증오심, 악의 원한, 정욕 및 야심 등을 주시(注視)하여 본다. 이러한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

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죄악적인 감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전 12:14)실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1기별, 217)

아마 무지하므로 지은 죄들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 곳에서는 예수께서 법궤 앞에 서서 아직도 자비를 베풀 모든 사람과 무지하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증보를 하고 계시다. 이 속죄는 죽은 의인과 살아 있는 의인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죽었으나 계명에 대한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 가운데 계명을 범한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다.”(초기, 254)

“예수님께서서는 무지함 가운데 지은 모든 죄들을 위해 속죄하셨지만, 의도적으로 눈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은 없다.” 5BC 1145

“하나님의 눈은 결코 졸지 않는다. 그분은 사람의 눈에 숨겨진 온갖 죄를 아신다. 죄를 범한 자들은,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려면 어떤 죄를 고백해야 할 것인지 안다. 예수님께서서는, 매우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그들의 생애를 깨끗하게 할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계신다.”(1증언, 156)

“진정한 자복은 언제든지 명백하게 하고 또한 지은 죄를 꼭 지적하여 자백한다. 죄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자복하여야 할 성질의 죄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자복하여야 할 잘못들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죄는 공중에 대한 죄이므로 공중 앞에 자복하여야 할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떤 자복이든지 그대가 범한 죄를 꼭 지적해서 명확하고도 요령있게 하여야 한다.”(정로, 38)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일 1:9.

“그때에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에게 살같이 연한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겔 36:25-27.

“죄지은 자를 위해 준비된 것은 오직 한 가지 밖에 없다. 신실한 회개와 죄의 고백, 깨끗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용서를 가져다 줄 것이며, 그의 이름에 용서받은 사실이 기록될 것이다.” 2T 293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 32:1, 2.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일 1:7.



Forgive One Another

27

서로 용서하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犯法)하거든 그를 꾸짖고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가 만일 하루에 일곱 번 네게 범법하고 하루에 일곱 번 네게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눅 17:3, 4.

“만일 한 형제가 잘못하고 그대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그를 용서해주라. 그가 만족할 만큼 겸손하게 구하지 않더라도 그대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주라. 그리고 그대의 용서함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라. 그리하여 그의 죄의 짐이 조금도 그대 위에 지워지지 않게 하라. ‘네 자신을 살펴 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 우리는 오직 일곱 번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 이라도 해야 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으며, ‘당신이 교정된 것을 내가 볼 때에, 그 때에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소’ 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의 암시를 따르는 것이다. 그대가 그대의 형제와의 교제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대는 단순히 그의 영혼과 그대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에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것이다.” RH 4-8-1902

“너희의 마음으로부터 네 형제를 용서하라.” 마 18:35 RSV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하라.” 엡 4:31, 32.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 결국 자기의 용서의 희망

을 내던지는 것이다.”(실물, 247)

“그가 비록 한때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의 각박한 정신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고 죄 사함을 받기 전과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 그는 자기의 회개를 부인했고 그의 죄는 마치 그가 회개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그에게 머물러 있다.”(실물, 251)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덧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하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 속에서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이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골 3:12-15.



Make Y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28

그대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그 까닭은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임이요 또 이같이 하면 주께서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실 것임이라.” 뱀후 1:10, 11.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기 때문이니라(마 22:14). 많은 사람들이 자비의 초청을 받고, 시험을 받아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는 자는 별로 없다.”(5증언, 50)

“주께서는 내게 우리의 마음을 세속적인 생각과 염려로 채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 주셨다. ...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현대 진리가 쫓겨나게 되고 우리의 이마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초기, 58)

“그것은 볼 수 있는 어떤 인이나 표가 아니라, 지적으로 영적으로 둘 다 진리 안에 고착되어 움직여 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4BC 1161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이른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5증언, 214)

“영혼이 정결함을 입었을 때,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지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SD 99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나타나기를 임쓰라.” 뱀우 3:14.

“오직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만이 첫째 부활을 위해 준비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는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ST 2-9-1891

“도덕적 완전이 모든 이들에게 요구되어 있다.” COL 330

“하늘의 안목에서 볼 때 가치가 있는 것은 신령하고 도덕적인 성품이며 그러한 성품은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게 할 것이다.”(1기별, 259)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니라.” 잠 4:23.



Grow In Grace Continually

29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뱀후 3:18.

“예수님은 사람으로 간주되었지만 완전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시더라’(눅 2:52).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1증언, 339-340)

“그 성령의 은혜는 그대의 성품을 원숙하게 할 것이다. 그대의 믿음은 증가할 것이고, 그대의 회개는 깊어질 것이며, 그대의 사랑은 완전하여 질 것이다. 더욱 더 그대는 순결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사할 것이다.” SD 32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 안의 알찬 곡식이라.” 막 4:28.

“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계속적인 발전이 있게 될 것이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우리가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경험은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도 증가한다. 우리는 책임을 질 만큼 강해지고 특권에 비례해서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실물, 65-66)

“우리의 사업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생애하실 때에 품성의 모든 면에서 완전함에 도달하신 것처럼 우리의 활동 영역 안에서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KH 130

“하나님의 사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자아부인을 매일 실천하며 기

뿐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감이 없으면, 아무도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에 있어서 매일 전진하게 될 것이다.” 2T 505

“모든 일에서 그분 안으로 자라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엡 4:15.

“성화는 한순간, 한 시간, 혹은 하루의 과업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이다. 우리는 다음번에 올 투쟁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사단은 살아 있고 활동적이므로, 우리는 그를 저항하기 위한 도움과 힘을 얻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사단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우리에게는 굴복시켜야 할 자아와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정지해 있을 장소는 없고, 우리가 도달하여 완전히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지점도 없다.”(1증언, 340)

빠지기 쉬운 죄악들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환경과 유혹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날마다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반대의 세력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성질을 자극하여 화가 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올바른 정신으로 대함으로써 그리스도인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인내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게 될 것이다. 매일, 매년 우리는 자아를 정복하고 고상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맡은 과업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과 확고한 결심과 흔들리지 않는 목적과 끊임없는 경성과 지속적인 기도가 없으면 그 일을 성취할 수 없다.”(치료, 487)

“그러므로 우리가 공황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6.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필수적인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리와 계속적으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육신적 마음의 모순됨이 나타날 것이며, 그 생애는 나누어진 봉사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6BC 1117

“그러므로 내 아들이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딤후 2:1.

“그분께서 그대에게 오래 참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며, 그분께서

영원한 삶을 위하여.....

그대에게 진실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대에 침착하지 못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며,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친절한 영으로써 그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그대의 영혼을 연약한 그대로 받으실 것입니다.” 2SM 231, 232.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고후 12:9.

“믿는 영혼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넘치는 은혜가 제공되었으며 온 하늘과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의 명령 아래 두셨다.” 1SM 394

“하나님께서 비길 데 없는 선물인 당신의 아들 주심으로, 온 세상을 은혜의 분위기로 둘러싸기를 마치 공기가 지구를 둘러싼 것 같이 하셨다. 누구든지 이 생명을 주는 공기를 호흡하기를 선택하는 자들은 살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기까지 자라날 것이다.” SC 68

“화평의 그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기록히 구별하시는 도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진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들을 행하시리라.” 살전 5:23, 24.

“가장 사소한 일들을 행할 때에도 산 믿음이 금실처럼 그 일을 통해 이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는 매일 매일의 일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촉진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예수를 쳐다보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행하는 모든 일에 활기를 주게 될 것이다. ... 이것은 참된 성화이다. 왜냐하면 성화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매일의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실물, 360)

인용문 약어 해설

AA	The Acts of the Apostles
AH	The Adventist Home
BC	7A of the SDA Bible
COL	Christ's object Lessons
DA	The Desire of Ages
ED	Education
EV	Evangelism
EW	Early Writings
FE	Fundamentals of Christian
FL	The Faith I Live By
FW	Faith and Work
GC	The Great Controversy
GW	Gospel Workers
HP	In Heavenly Places
KH	That I May Know Him
MB	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
MH	The Ministry of Healing
ML	My Life Today
MYP	Messages to Young People
OHC	Our High Calling
PK	Prophets and Kings
PP	Patriarchs and Prophets
RH	Review and Herald Articles
SD	Sons and Daughters of God
SM	Selected Messages
ST	Signs of the Times Articles
T	Testimonies for the Church
TM	Testimonies to Ministers

영원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신 이 책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성경적이고 예언의 신적인 명확한 해답을 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가렛 데이비스(Margaret Davis) 여사는
토마스 데이비스(Thomas A. Davis) 목사님의 사모이며,
토마스 데이비스 목사님은 리뷰앤드 헤럴드(Review and
Herald) 출판사의 부 편집인으로 계셨었고, 인도와 필리핀에
십년간 선교사로 계셨습니다. 또한 베스트셀러인 ‘How to Be
a Victorious Christian’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마가렛 데이비스
여사는 약 20여 년 전부터 토마스 목사님과 함께 세계 각
처에 초청받아 참된 복음을 전하는 강사로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책은 수 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씌름하여 얻은
결과물이며,
1400 페이지가 넘는 책을 축소하여 만든 것입니다. 마가렛
데이비스 여사가 세계 각 곳의 세미나에 초청받아 강의 할
때에 사용하던 노트를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하여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므로 오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길
기도합니다.